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이중재 프란치스코, 전은숙 글라라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강후길 프란치스코, 이영주 크리스티나	교무금: \$160
금주 미사 복사: 윤지희 데레사	봉헌금: \$177
다음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
금주 미사 해설: 유지원 카타리나	합계 : \$337
다음주 미사 해설: 윤보연 소화데레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정연희 가브리엘라, 강동현	금주 봉헌봉사: 윤보연 소화데레사
회 계: 황성필 세레자 요한 친교실 정리: 대학원구역	다음주 봉헌봉사: 전은숙 글라라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목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부터 4시 55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9 월 6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하계 휴식기 (9 월 재시작 예정)
예비자 교리 모임	8 월 24 일 토요일 저녁 7 시, 사제관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장소,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아침 (Tumbledown Trails, 시간:페이스북 클럽 참고)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Tennis court at Rennebohm park,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학부생 구역	미정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늘의 묵상

한번은 동창 신부가 그의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 하였는데, 그분은 공직자로서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비근한 예로, 추석 같은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과일 등의 선물을 보내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단돈 만 원 한 장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아들 신부에게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원칙 하나가 있단다. 사람이 살다 보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단다. 선택할 때에는 언제나 선택하기 싫은 것, 바로 그것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될 거야.”

덜 원하는 것, 덜 편한 것, 덜 쉬운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복음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 보여 줍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불편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오그려야 합니다. 그 반면, 넓은 문은 대접받는 사람들을 위한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편하고 쾌적합니다. 이 두 개의 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떠올리도록 합시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이중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2013년 8월 24 일

연중 제 21 주일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18-21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5-7.11-13

화답송	시편 117(116),1.2 ㄱㄴ (◎ 마르 16,15 참조)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2-30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골짜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골짜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404 봉헌: 512 성체: 247 파견: 28



생명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명작소설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소설을 접했는데, 당시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좁은 문」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험했을 법한 내면적 갈등을 자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1869년 파리 출생으로,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격한 종교적 계율을 강요한 어머니 아래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좁은 문」은 그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 시작한 10대 후반부터 사촌 누이를 사랑하고 불안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도 남자 주인공 제로움은 자신보다 두 살 위인 외사촌 누이 엘리사를 사랑합니다. 둘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지상에서 이를 수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날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설 속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한 사랑이 신앙에 대한 배반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성장한 저자는 작품 안에도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소설 「좁은 문」에서의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 아닌 ‘두려움과 징벌의 하느님’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태 7,21 참조) 오히려 주님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첫째가 되고 누가 꼴찌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탐욕으로 살뿐 몸뚱이는 욕심을 버리고 줄여야 합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길입니다. 우리도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매 순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허영업 마티아 신부 |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 공지사항

1. 꾸르실료 교육을 받는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영숙(카타리나), 한영주(리드비나), 전은숙(글라라)

중북부(시카고) 여성 제 14 차 꾸르실료 교육이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박 4일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세 분의 자매님들께서 꾸르실료 교육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공동체에 더 큰 사랑을 전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생명공학 전공으로 오신 천기운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Theatre & Drama 전공이신 박성희 라파엘라 자매님 그리고, Law 전공이신 방윤경 자매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많은 환영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3. 8월 31일 미사 후에 맛있는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이 달은 2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즐거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을 야유회 및 추석 미사가 9월 22일 일요일 Elver Park 에서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11시 미사 후 공동체 식사와 야유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일 야외 미사 일정으로 21일 토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겨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 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흥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독서단 모집(계속) >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사 자매님 (bomi921@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 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